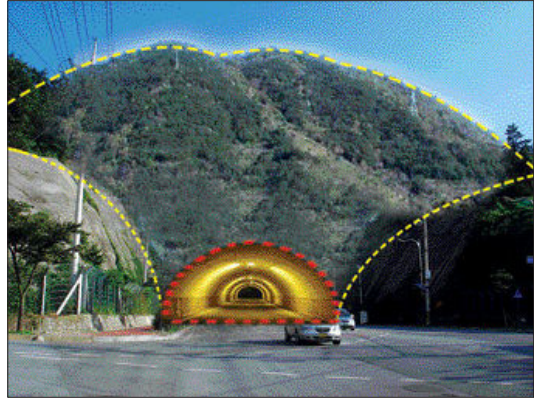


도로 내느라 자른 산 터널 만들어 복원한다

여수시 '웅천재 되살리기'

전남지역에서 도로개설 때문에 허리가 잘린 산을 다시 잇고 간척지를 갯벌로 복원하는 계획이 추진되는 등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는 과거 지나친 개발논리에 따라 당연시됐던 무차별적인 환경과과보다는 개발과 보전을 병행하려는 흐름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각종 개발계획에 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웅천재 생태복원 예상도. 복원공사가 끝나면 현재 양쪽으로 허리가 잘린 웅천재는 콘크리트로 만든 터널(가운데 빨간점선) 위에 나무들이 심어져 본래의 모습(노란 점선)을 되찾게 된다.

"개발서 환경보전으로 방향전환"

여수시는 옛 여수권과 여천권을 연결하는 웅천재 복원을 확정하는 등 녹색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착수했다. 시는 웅천재의 잘린 산자락을 복개터널로 복원시켜, 생태환경 신도시로 조성하고 있는 웅천택지와 조화를 이루고, 대기오염 예방, 동식물 보호 등 생태 도시로 회복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산출과 예산확보방안, 사업공법 등 구체적인 기본계획수립을 진행중인 여수시는 연말께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웅천재는 일관유역지 선소가 있는 망마산과 고락산 줄기인 대인산을 도로개설로 절단해 구여수권과 구여천권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웅천재는 건설 당시부터 환경을 고려해 터널식으로 개설 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 논리의 산물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웅천재 복원은 지하철을 건설하는 공법인 개착식 터널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개착식 터널 공법은 미리 파헤쳐진 곳에 기초를 다지고 철재로 반원형을 만들어 콘크리트로 터널을 만들고 그 위에 흙과 나무들을 심는 공법이다.

이와함께 국내 최초로 바다 매립지를 뚫어 갯벌을 복원하는 사업이 장흥군 회진면 일대에서 추진된다.

장흥군은 지난 4일 회진항~신상리간 바다매립지 통수시설사업(본보 5일자 1면 보도)이 해양수산부 제1차 연안정비 계획에 반영돼 내년 12억 6천만원의 실시 설계비가 확보됐다고 밝힌 바 있다. 기본 계획이 확정된 2008년부터는 200억원의 국비가 투입돼 연차 사업으로 바다 매립지를 뚫게 된다.

장흥 갯벌 복원 등 성공여부 관심

환경 전문가들은 생태복원에 대한 방향 전환은 환영할만 하지만 복원과 사후 활용과정에서 또다른 생태과과를 불러올 수 있어 보다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미경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개발 지역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의 새로운 생태가 유지돼온만큼 복원 과정에서 또다른 과과를 막을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 또 복원 후 관광자원화 등 사후활용 측면을 너무 강조하면 생태계가 다시 시달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박미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9·11테러 5주년... 끝나지 않은 악몽

9·11 테러 당시와 현재의 뉴욕 세계무역센터 주변 모습. 2001년 9월 11일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남쪽 타워가 붕괴되자 보행자들이 대피하고 있다. 오른쪽은 자전거를 타고 같은 지점을 지나는 행인의 모습을 9·11 당시 현장 사진을 찍은 AP 사진기자가 촬영한 것이다. 지난 5년동안 미국인들은 악몽을 털고 활기를 되찾았지만 여전히 테러 노이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반미(反美) 이슬람주의는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 '테러와의 전쟁' 희생자가 18만명에 이른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 관련기사 5면 /AP 연합뉴스

광주비엔날레 개막 4일만에 작품 15점 훼손 낮 부끄러운 문화수도

재단, 입장제한 검토...감상기회 박탈 부작용 우려

2006광주비엔날레가 개막한 지 4일 만에 전시 작품 15점이 훼손되거나 파손되는 등 국제적인 행사에 걸맞지 않은 관람문화로 '문화수도' 광주의 명성에 흠집을 남기고 있다. 특히 일부 관람객들의 작품 훼손이 잇따르자 비엔날레 측에서는 특정작품 전시실 입장을 제한할 것을 검토하고 있어 작품 감상 기회 박탈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관련기사 15·20면> 10일 광주비엔날레 재단에 따르면 개막 3일째 2만2천여명의 관람객이

입장한 가운데 개막 첫날 제1전시실에서 장후안(중국)씨의 작품 '평화'의 인체 조각상의 머리 부분 도금이 벗겨진데 이어 이튿날에는 플럭서스(그룹)의 '경계는 없다'가 파손되는 등 무려 15개 작품이 손상당했다. 소금을 소재로 만든 도브 브레드쇼(감보디아)의 '여섯 개의 대륙'은 관람객들이 소금을 발로 밟는 바람에 몸살을 앓았고, 베트남 쌀을 소재로 한 '네온 라이스 필드'도 쌀을 관람객들이 흩어놓는 등 훼손이 잇따르고

있다. 비엔날레 대상작인 마이클 주(미국)의 '보디 오프스캐터스'의 영상을 보여주는 비디오 모니터 2개는 개막 전에 도난당했다. 비엔날레 전시지원팀 관계자는 "안전사고와 작품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어린이를 동반한 일부 관람객들이 어린이들을 방치하는 바람에 작품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시민들의 성숙한 관람문화가 아쉽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만취 승객' 비행기 못탄다

앞으로 주당(酒黨)들은 비행기를 타기 전이라면 각별히 술 조심해야 할 것 같다. 항공사가 술에 취해 기내에서 소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항공기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법률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이른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사가 술에 취해 항공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된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건교위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후원대학 장학50년 역사만 은행
남부대학교
http://www.nsbu.ac.kr
▶ 상담전화 062-970-0114 ▶ T.062-970-5000-5

세계를 담는 대학
진남과학대학
http://www.jnsc.ac.kr
▶ 상담전화 062-970-0114 ▶ T.062-970-5000-5

대한민국을 가장 보
대한민국을 가장 보
대한민국을 가장 보
대한민국을 가장 보
대한민국을 가장 보
대한민국을 가장 보
대한민국을 가장 보
대한민국을 가장 보
대한민국을 가장 보
대한민국을 가장 보

24%
진주름과 칙칙함을 동시에
매직이펙터

IOPE